



‘스테디셀러 푸른병의 와인’

블루넨 화이트

Blue Nun White

지역	독일 > 라인헤센		
포도품종	리바너 100%		
알코올	10%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7~10℃		
테이스팅 노트	달콤한 과일, 잘 익은 배, 구스베리, 까시스, 꿀, 마른 잔디향이 어우러져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뛰어나다. 산도와 감미롭게 어우러져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피니쉬로 마무리 된다.		



제품설명



산뜻한 느낌의 푸른 병에 담긴 블루넨 리바너는 라인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라인헤센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들어진다. 미디엄 바디 화이트 와인으로 너무 스위트 하지않고 풍부한 과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있으며, 단맛의 여운에 섞여 있는 미네랄 맛과 신선한 산미로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린다.

와이너리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넨은 지셀 존에 의해 1921년 설립되었다. 1995년 랑구스 사와 합병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블루넨은 더욱 모던하고 상큼한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와인이 되었다. 블루넨은 문자 그대로 '푸른 옷을 입은 수녀'라는 뜻으로, 오래 전부터 와인은 성스러운 장소인 수도원이나 성당에서만 만들 수 있었으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녀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품질의 포도원액과 어울리는 푸른색의 미려한 병모양은 다양한 계층의 와인 애호가들의 욕구를 언제나 충족시켜 왔다. 블루넨의 오랜 역사와 모던한 기풍은 크발리테츠바인에서부터 아이스바인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